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
| 정답 및 해설편 20p 오답의 이유 번호 : 02 | 오타 | [오답의 이유] ① ‘조용히’는 ‘이’와 ‘히’ 모두로 발음되므로 ‘-히’를 쓴다. ② ‘번듯이’는 ‘이’로만 발음되므로 ‘-이’를 쓴다. 참고로, ‘ㅅ’ 받침 뒤에는 대체로 ‘-이’가 붙는다. ④ ‘따뜻이’는 ‘이’로만 발음되므로 ‘-이’를 쓴다. 역시 ‘ㅅ’ 받침 뒤에 ‘-이’가 붙었다. | [오답의 이유] ① ‘조용히’는 ‘이’와 ‘히’ 모두로 발음되므로 ‘-히’를 쓴다. ② ‘번듯이’는 ‘이’로만 발음되므로 ‘-이’를 쓴다. 참고로, ‘ㅅ’ 받침 뒤에는 대체로 ‘-이’가 붙는다. ③ ‘따뜻이’는 ‘이’로만 발음되므로 ‘-이’를 쓴다. 역시 ‘ㅅ’ 받침 뒤에 ‘-이’가 붙었다. |
| | | 수정 사유 | 선지 문항 번호 오타 |
| 59p 번호 : 13 | 문제-본문 | 13 다음 중 본말과 준말의 연결이 옳은 것은? ① 거북하지 - 거북 지 ② 기러기야 - 기력아 ③ 쓰레기야 - 쓰렉아 ④ 그렇지 않은 - 그렇 잖 은 | 13 다음 중 본말과 준말의 연결이 옳은 것은? ① 거북하지 - 거북 치 ② 기러기야 - 기력아 ③ 쓰레기야 - 쓰렉아 ④ 그렇지 않은 - 그렇 찮 은 |
| | | 수정 사유 | 문항 선지 오류 |
| 64p 번호 : 17 | 문제-문항 | 17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? ① 선거를 치른 후에 개각을 단행하였다. ② 승패를 가름한 것은 선수들의 투지였다. ③ 길거리에 물건을 벌여 놓으면 안 된다. ④ 소속 직원이 아닌 분은 사용을 삼가주세요 . | 17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? ① 선거를 치른 후에 개각을 단행하였다. ② 승패를 가름한 것은 선수들의 투지였다. ③ 길거리에 물건을 벌여 놓으면 안 된다. ④ 소속 직원이 아닌 분은 사용을 삼가해주세요 . |
| | | 수정 사유 | 문항 선지 오류 |
| 67p 번호 : 12 | 문제-본문 | 12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? ① 위쪽 ② 통째 ③ 귀땀 ④ 구 절 | 12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? ① 위쪽 ② 통째 ③ 귀땀 ④ 귀 절 |
| | | 수정 사유 | 문항 선지 오류 |
| 70p 번호 : 09 | 오타 | ④ 철수는 영희에게 ? 선물을 주었다. | ④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. |
| | | 수정 사유 | 오타 |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
| 73p 번호 : 07 | 문제-본문 | 07 다음 중 표준 발음법상 옳지 않은 것은? ① 얹다[알 : 따] ② 째게[잘개] ③ 맑더라[막떠라] ④ 밧고[발 : 꼬] | 07 다음 중 표준 발음법상 옳지 않은 것은? ① 얹다[알 : 따] ② 째게[잘개] ③ 맑더라[막떠라] ④ 밧고[발 : 꼬] |
| | | 수정 사유 | 문항 선지 오류 |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